

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에너지산업의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현



지난해 후반기 이후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2014년 6월 배럴당 111달러에 거래되던 두바이유는 2015년 5월 현재 62.7달러까지 내려 40% 이상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석유공급 증가,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 및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이라는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북미지역 중심의 셰일오일과 오일샌드 생산이 2012년 이후 지속 증가되고, OPEC 국가들의 원유수출도 증가하여 국제 석유시장에서 공급초과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15년 평균유가를 배럴당 60.3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기관들도 지난해 12월 이후 2015년 국제유가 전망을 50달러 중반~60달러 중반까지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유가 상황은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제유가가 60달러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약 45조 원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순수입액 감소와 함께 실질 GDP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관심의 폭을 국내 에너지시장으로 좁혀보면, 저유가 기조가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당장 국내 석유업계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고평가 손실, 정제마진 감소, 자산가치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 현재 세계는 포스트 2020으로 대표되는 신기후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교토체제와 달리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수용성이 악화된 원자력을 제외 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이외에 사실상 없다. 문제는 이들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 저유가 기조에서는 절대 불리하다는 점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온실가스 저감대책 말고도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포스트 화석에너지시대를 기술에너지시대로 전망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은 ICT와 융복합된 에너지신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목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유가의 단기적 움직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같은 저유가 시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회를 100%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의 투자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